

보도해명자료

(‘12. 7. 9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임기말 부처 ‘5G 무선통신’ 챙기기?” 보도에
대한 입장(전자신문, ‘12.7.9)

1. 기사내용

- 지정부 포럼(개방형 이동통신망기술 포럼), 방통위 TF와 내용
중복 주도권 다툼 불가피... 기관 업계 혼란
 - 지정부와 방통위가 5세대(G) 무선통신을 두고 주도권 다툼에 돌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5G 무선통신을 두고 지정부와 방통위가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
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개방형 이동통신망기술 포럼은 현재 업계 당면과제·문제인
4G 기지국(LTE-Adv.)의 RU·DU 규격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
5G 무선통신과 관련 없음
 - * 이동통신 기지국은 RU(Radio Unit, 안테나 등 무선신호처리 장비), DU(Digital Unit, 베이스밴드모뎀칩 등 디지털신호처리 장비)로 구성
 - * 3G 기지국은 RU와 DU가 통합되어 있으나 4G 기지국은 RU·DU가 분리
되어 RU가 3G의 중계기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동통신장비 업계에
RU·DU간 인터페이스 표준 문제 발생
- 동 포럼은 방통위, TTA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도 후원하는
것으로 지정부와 방통위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
성격의 포럼임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서성일 과장 (02-2110-4810)
오재철 사무관 (02-2110-4811)